

우애가 두터운 빈랑 형제

글 | 신 현 배
시인·아동문학가

까마득히 먼 옛날, 베트남의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왕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네게 성을 내려주마. 키가 무척 크니 ‘높을 고(高)’ 자를 써서 고폼라고 하여라.”

“감사합니다, 아바마마.”

그리하여 왕자는 고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왕자는 장가를 들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왕자는 크게 기뻐하며 큰아들에게는 ‘빈’, 작은아들에게는 ‘랑’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빈랑 형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6-17세가 되었을 때는 아이 티를 벗고 어엿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형제에게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몹쓸 병에 걸려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흐흐흐, 아버지, 어머니…….”

형제는 크게 슬퍼하며 부모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형이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스승을 찾아 공부를 계속하자.”

“예, 형님. 제가 듣기로, ‘유현도’라는 분이 학문이 깊고 덕망이 높다고 합니다. 그분을 찾아가 배움을 청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함께 찾아가 보자.”

빈랑 형제는 물어 물어 유현도의 집을 찾아가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현도를 만나자마자 큰절을 올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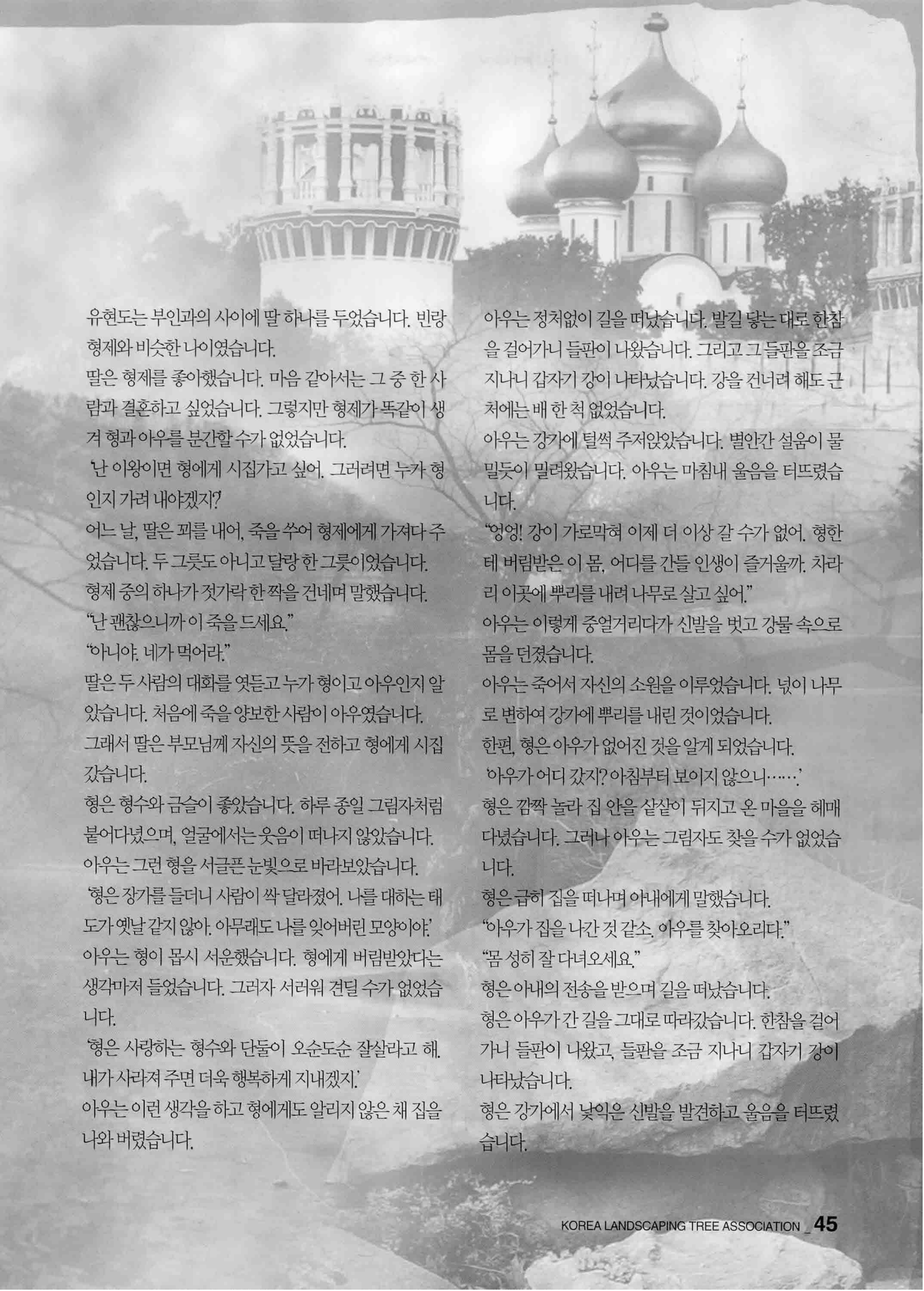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유현도는 말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으음, 배우겠다는 열정이 강하고 겸손한 젊은이들이군. 둘 다 재주가 있어 보이고…….’

유현도는 형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빈랑 형제는 그 날부터 유현도의 집에서 먹고 자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유현도는 부인과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빈랑 형제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딸은 형제를 좋아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중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똑같이 생겨 형과 아우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이왕이면 형에게 시집가고 싶어. 그러려면 누가 형인지 가려 내야겠지?’

어느 날, 딸은 피를 내어, 죽을 쑤어 형제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그릇도 아니고 달랑 한 그릇이었습니다.

형제 중의 하나가 젓가락 한 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이 죽을 드세요.”

“아니야. 내가 먹어라.”

딸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누가 형이고 아우인지 알았습니다. 처음에 죽을 양보한 사람이 아우였습니다.

그래서 딸은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전하고 형에게 시집갔습니다.

형은 형수와 금슬이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붙어다녔으며,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우는 그런 형을 서글픈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형은 장가를 들더니 사람이 싹 달라졌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옛날 같지 않아. 아무래도 나를 잊어버린 모양이야.’

아우는 형이 몹시 서운했습니다. 형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자 서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사랑하는 형수와 단둘이 오순도순 잘살라고 해. 내가 사라져 주면 더욱 행복하게 지내겠지.’

아우는 이런 생각을 하고 형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아우는 정치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한참을 걸어다니니 들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을 조금 지나니 갑자기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을 건너려 해도 근처에는 배 한 척 없었습니다.

아우는 강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별안간 설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우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엉엉! 강이 가로막혀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형한테 버림받은 이 몸, 어디를 간들 인생이 즐거울까. 차라리 이곳에 뿌리를 내려 나무로 살고 싶어.”

아우는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신발을 벗고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우는 죽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냇이 나무로 변하여 강가에 뿌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형은 아우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우가 어디 갔지? 아침부터 보이지 않으니…….’

형은 깜짝 놀라 집 안을 샅샅이 뒤지고 온 마을을 헤매다녔습니다. 그러나 아우를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급히 집을 떠나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우가 집을 나간 것 같소. 아우를 찾아오라다.”

“몸 성히 잘 다녀오세요.”

형은 아내의 전송을 받으며 길을 떠났습니다.

형은 아우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다니니 들판이 나왔고, 들판을 조금 지나니 갑자기 강이 나타났습니다.

형은 강가에서 낚이는 신발을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우야, 이게 어찌 된 일이니?”

형은 아우가 자신에게 버림받은 슬픔에,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우야, 내가 잘못했다. 이 형을 용서해 다오.”

형은 큰 소리로 울며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형은 죽어서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무 뿌리가 자신의 몸을 친친 감도록 했습니다.

한편, 집에 남아 있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어찌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지? 혹시 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

아내는 걱정이 되어 집에 앉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강가에 다다른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윗도리인데. 그럼 그이가 강물 속에……?’

아내는 남편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커다란 돌을 안고 자신도 강물에 뛰어 들었습니다.

아내는 죽어서 덩굴 식물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위를 에워쌌습니다.

유현도 부부는 뒤늦게 자신의 딸과 빈랑 형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몹시 슬퍼하며 강가에 사당을 지었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뒤부터 이 곳 사당은 그 고장에서 가장 이름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근처를 지날 때면 꼭 사당에 들러 절을 하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빈랑 형제처럼 우애가 두터운 형제가 또 있을까?”

“빈의 아내는 열녀 중의 열녀야. 이들 부부처럼 금슬이 좋은 부부는 아마 찾을 수가 없을걸.”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한여름에 피서를 떠난 왕이 사당

을 찾았습니다.

왕은 사당 앞에 우거진 덩굴 잎을 보고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위는 덩굴 잎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때 한 신하가 왕에게 빈랑 형제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사람이 죽어 나무와 바위와 덩굴이 되다니. 참으로 슬픈 사연이로구나.”

왕은 덩굴 잎을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어 보니 입안이 화끈거리도록 맵싸해도 맛이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덩굴 잎과 나무 열매를 잔뜩 따서 궁전으로 가져가자.”

궁전으로 돌아온 왕은 돌을 구워 재로 만든 뒤, 그 재를 나무 열매와 함께 덩굴 잎으로 싸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천하의 별미였습니다. 먹고 나니 입술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전체에 퍼져 흔레 때 반드시 내놓는 필수 음식이 되었습니다.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 베트남 사람들은 다투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바로 빈랑 형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빈랑나무’입니다. 🌳